

##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 6월 2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월 21일, 경사노위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노사정 2·6합의'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제별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위원 각 2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6월 20일까지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연장될 수 있으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정의 갈등과 반목의 장(場)이 아닌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유정업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며, “장시간 저임금 구조 개선이 전제된 가운데 일·생활 균형과 시간 주권을 회복하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장기간 근로를 해소



▲ (왼쪽부터) 이인재 인천대 교수(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황용현 경총 본부장, 권창준 고용부 정책관이 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 생산성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작년 11월 근로시간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로시간 개편 및 건강권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들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는 의제별 노·사 발제 등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slc**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

<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명단 >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계 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경영계 위원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부 위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공익 위원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담당전문 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해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경사노위는 6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앞선 '노사정 2·6 합의'에 따라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로부터 1년간(24. 6.



▲ 김민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계속고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6월 27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및 1차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25. 6. 26.) 운영된다.

주요 논의 의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층의 직무능력과 풍부한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본”이라며, “중단 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지지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도 각오를 밝혔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분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한 번 퇴출되면, 고용 절벽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라며, “고령자들이 60세 이후에도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구축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금의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법제도로는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중고령자 전직 재취업 촉진 등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상생 고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절박한 과제이며, 고용 노사 간 견해차가 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사회적 대화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라며, “노사 간에 의견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면 동국대 교수(위원장)가 계속고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향후 계속고용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소득 공백, 중고령층과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관계,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노사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SIC](#)

< 계속고용 위원회 위원명단 >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동계 위원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부분부장
	김기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분부장
경영계 위원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부 위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공익 위원	권기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담당 장욱희 전문위원

#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어”

- 경사노위, 울산지역 노사정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산*



▲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했다.

경사노위는 6월 26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 본부, 한국석유공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발달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로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노사정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

역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다”며,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도 만나 면담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와 (주)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사관계자들과 만나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노사정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중앙과 지역이 연계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slc**

담당 이길모 전문위원



▲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 진행 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충곤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오른쪽), 박동섭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석유공사 노사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을 시찰하며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